

고려 왕실 진전사원의 입지특성

안경숙, 고려실2 18:00~18:30

사찰 건축은 종교적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기능에 의해 사찰 내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신앙 대상에 따라 각각 전각이 세워지고, 주존의 위계에 따라 전각이 배치되는 위치도 달라집니다. 승려들의 주거 공간으로 승방 등의 건물 외에도 불교의식을 행할 때 모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 공간과, 불구 등의 저장 공간, 의례 진행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요구됩니다. 왕실 행사의 경우에는 부속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의례를 거행할 넓은 공간과 부속시설들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찰의 종파나 건립 주체에 따른 사찰 배치 영향도 고려해 보아야겠지만 고려 시대 사찰이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고, 남아 있더라도 개경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누대에 중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기적 특성이나 종파에 따른 배치 영향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찰의 배치는 무엇보다 사찰이 입지한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사지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대지를 조성하여 높은 단 위에 주불전을 배치하고 단차를 이용하여 부속전각 등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평지와 경사지는 동일한 시기라 할지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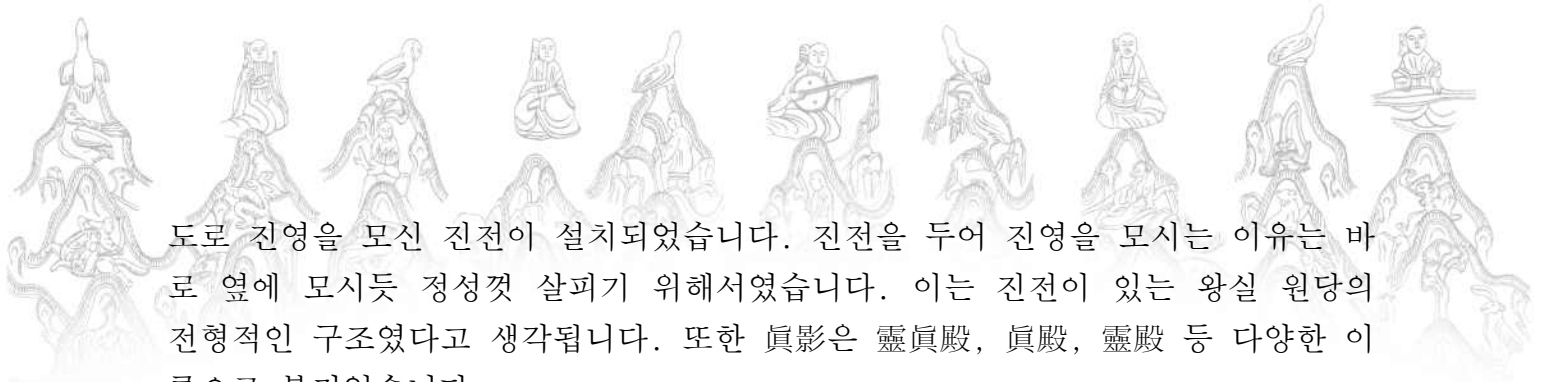
고려시대 산지에 입지한 사찰들도 자연지형에 맞춰 몇 개의 단으로 나누어 건물을 배치하면서 자유로운 배치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심영역은 비교적 전형적인 규범을 지키려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려는 진전제도에 있어 경원전 보다 사찰을 애용하고 있는데, 사찰에 진전을 지어서 진영을 모시는 구체적인 예는 현화사의 眞影 안치 과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능 동쪽 근처에 산수가 빙 둘러 형세가 있었다. ...이 오묘한 경지에 이 유명한 사찰을 세워 어버이를 추천하여 명복 돕기를 원했다. ...이에 절 안 서북쪽에 따로 지전 한 자리를 열어 皇考安宗憲景英文孝懿大王 皇妣孝肅仁惠順聖大王太后와 아울러 皇姉成穆長公主元貞王后의 眞影을 안치하게 하니, 좋은 인연을 만들었고 옆에 계신 듯 정성을 펴게 되었다.¹⁾

위에서 보듯 부모의 릉과 가까운 곳에 원당이 설립되고 원당 내의 서북쪽에 별

1) 「玄化寺碑陰記」 『韓國金石全文』, p.p.448-449



도로 진영을 모신 진전이 설치되었습니다. 진전을 두어 진영을 모시는 이유는 바로 옆에 모시듯 정성껏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진전이 있는 왕실 원당의 전형적인 구조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眞影은 靈眞殿, 眞殿, 靈殿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고려 왕실 사찰의 주요 입지는 개경으로 압축되지만 관련 자료를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왕실 사찰의 발굴 사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으로만 확인되고 폐사되거나 이전된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렵게 발굴이 진행될지라도 너무 간략하게 보고되고 있는 점도 제약점입니다.

개경의 원찰들은 대규모 불교행사를 치르기 위한 넓은 공간 수용,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개경 원찰 가람의 구성 특징은 다양한 예불 때문에 공간이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여러 개의 문으로 구성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조의 원당인 봉은사, 흥왕사, 불일사, 귀법사, 현화사, 안화사, 국청사 등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진전사원의 대표격은 봉은사였습니다. 이는 위숙군이나 왕실 관련 행사 등의 예에서도 잘 드러나는 점입니다. 현재 봉은사 진전의 배치 및 형태는 알 수 없지만 현화사의 배치 구조가 금당과 진전이 따로 구성되었던 것을 보면 격이 높은 진전 사원의 경우는 분리되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일사는 발굴 결과 동서폭이 230m, 최장 남북폭이 175m나 되는 대규모 사찰이었습니다. 중앙 구획은 중심축에 중문, 5층 돌탑, 금당, 강당이 배치되었고, 주변에 회랑을 둘렀습니다. 서쪽 구획은 중심축에 문, 중앙 건물, 뒷 건물이 배치되고 동·서·남면은 회랑이 위치합니다. 특히, 중앙 구획 회랑보다 넓은 회랑과 특별한 기단 장식, 진전으로 볼 수 있는 뒷 건물의 특별한 장식성을 근거로 왕실 원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통사는 3기의 돌탑과 금당, 강당 등으로 구성된 서쪽 구역과 탑 없이 건물을 배치한 동쪽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형에 맞게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고려시기 산지 절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형에 맞게 구획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북 중심축에 건물을 배치하여 입구 구역, 마당 구역, 기본 가람 구역과 부도 구역 등으로 나누고 승탑이 있는 북건물지를 영당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굴 결과로 볼 때 개경의 왕실 사찰들은 자연 지형에 맞추어 몇 개의 구역으로 조성되었지만 서북쪽 구역에 진전이 별도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왕실 행사에 맞는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단을 두거나 회랑을 설치하여 폐쇄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박석 등 바닥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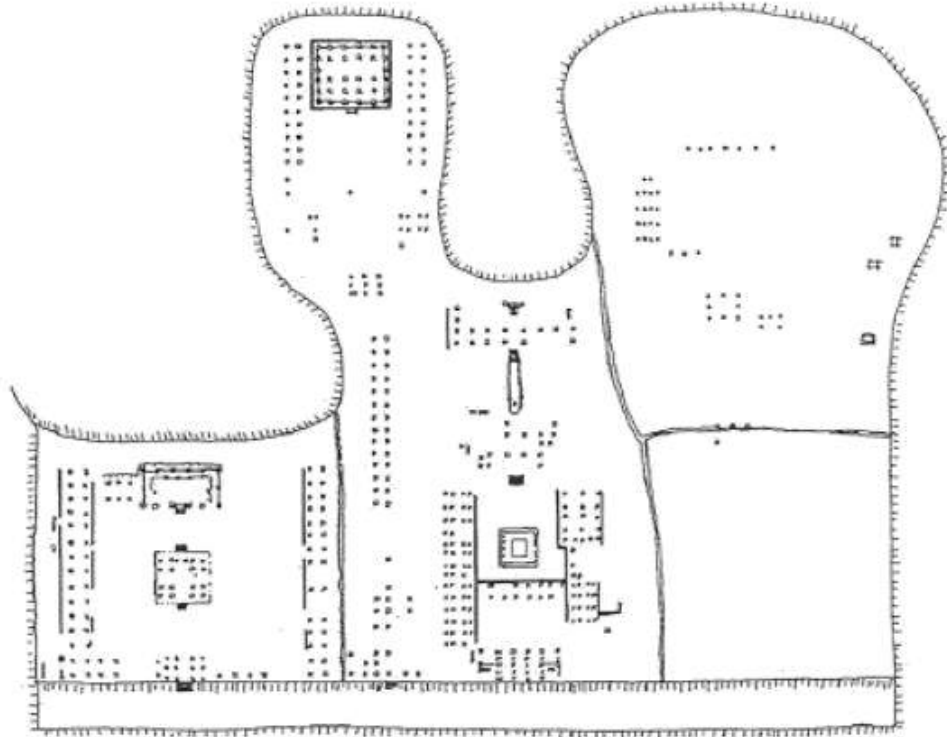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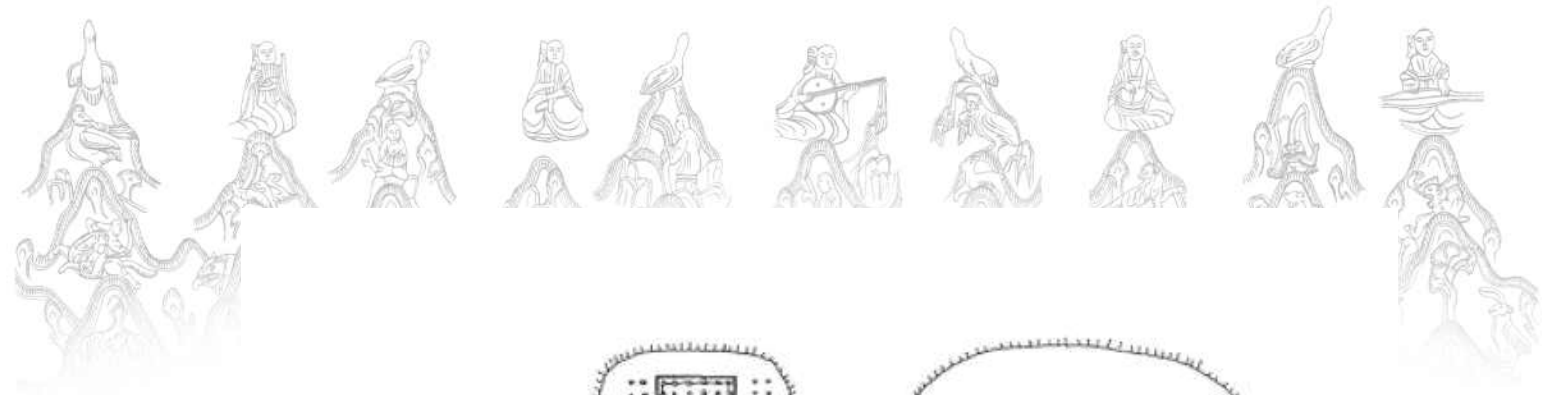


그림 1 개경 불일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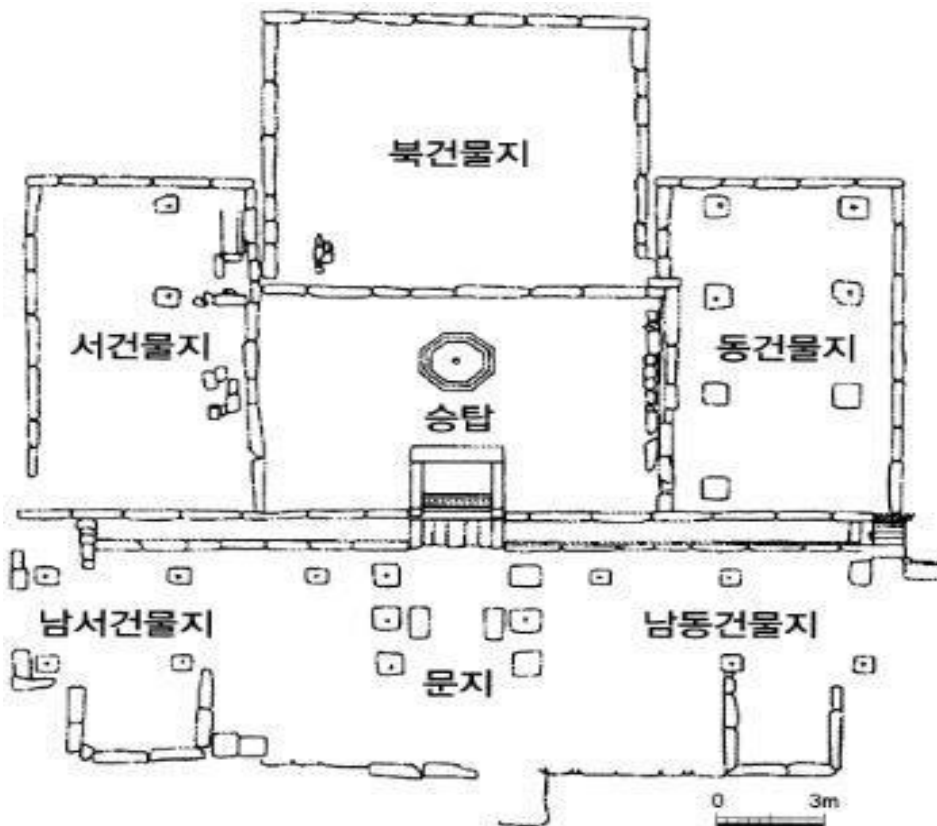


그림 2 개경 영통사터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11)

가을을 담은 실경산수화

오다연,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요청으로 3주간 연장한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도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0차례의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 특별전 기획 이야기 및 주요작품을 설명했는데 이번 주 큐대 주제는 가을의 풍경을 담은 실경산수화입니다.

정선鄭敼(1676~1759)은 가야산 자락에 있는 해인사를 부채에 담아냈습니다. 사찰 가람은 홍하문부터 장경관전까지 사선으로 배치되었고 그 주변으로 단풍이 곱게 든 수목들이 그려졌습니다. 정선은 부감시를 사용하면서도 반원형의 부채면에 어울리게 실경을 재단했습니다.

1796년 김홍도金弘道(1745~1806 이후)는 경기도 수원 화성華城 건설을 기념하여 화성의 가을 경치를 그렸습니다. <서성의 매사냥[西成羽獵]>과 <한정에서의 국화품평[閑亭品菊]>는 당시 화성 행궁에 비치하기 위해 제작된 화성추팔경도의 일부로 생각됩니다. <매사냥>과 <국화품평> 모두 화면 안에 서장대西將臺가 포함되어있지만 시점을 달리하여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사냥>은 부감시를 써서 앞쪽의 서장대와 들판을 내려 보고 있으며, 원경의 광교산光教山까지 대기원근법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넓은 공간을 표현했다. <국화품평>은 화성행궁의 후원에 위치한 미로한정未老閒亭을 중앙에 배치하고 아래서 서장대를 올려다보는 시선을 사용하였다. 두 폭은 신도시인 화성의 중요성을 알릴 뿐만 아니라 가을날의 빼어난 경치를 운치있게 담아냈습니다.

김홍도와 동갑이었던 도화서 화원인 이인문李寅文(1745~1821)도 가을날의 실경산수화를 제작했습니다. 충북 괴산의 수옥정, 경남 합천 가야산의 낙화담, 금강산의 발연은 같은 크기의 작품으로 본래 8폭병풍으로 구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수옥정>에는 조유수가 건립한 정자는 보이지 않고 중앙에 폭포가 강조되었습니다. 화면의 하단에는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함께 시원한 폭포를 감상하는 선비들이 그려져 관람자들의 감상을 돕습니다. 이인문은 안개로 아스라이 사라지는 산봉우리를 표현하며 실경을 이상화시켰습니다.

자연이 새로운 색으로 변하는 가을. 오늘날과는 달리 시각적 자극이 별로 없던 조선시대에 화가들은 색채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윽한 분위기까지 표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특별전시실에서 가을날의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한 화가들의 작품을 천천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사옹원 분원에서 개인 부탁으로 묘지석을 만들어 준 사례

조원교(趙源喬), 백자실 19:00~19:30

묘지(墓誌)란 묘 안이나 묘 둘레의 땅 속에 묻는 피장자인 묘주(墓主)에 대하여 적은 글이다. 또는 그 글을 종이, 나무, 돌, 금속의 표면에 쓰거나 새겼을 때도 묘지라고 한다. 이는 묘를 영원토록 전하러 만든 효와 예의 표현이다.²⁾ ³⁾ ⁴⁾ 묘지 이외에도 여러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묘지명(墓誌銘)이 있다. 묘지명은 묘지의 끝에 묘주를 칭송, 찬양, 추념, 감회, 추모 등을 담은 시구인 운문(韻文)인 소위 명(銘)을 추가하였을 때의 명칭이다. 묘지·묘지명을 흔히 묘지석(墓誌石)으로 부른다. 이는 고려시대에 돌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묘지석은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에 무덤 안의 벽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후는 돌이나 도자기로 만들었는데 고려시대에는 돌, 조선시대에는 도자기로 많이 만들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묘지석에는 묘주의 이름, 생몰 연월일, 세계(世系: 선조의 이름과 계통), 중요한 발자취,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친인척, 기록하거나 만든 날 등을 기록하였다.

기록한 내용이 긴 묘지석(대개 묘지명)은 그 글(묘지墓誌)을 대개 두 단계를 거쳐 작성한다. 먼저 작성하는 글은 대개 후손이 작성하며 가장(家狀)·행장(行狀)·행록(行錄)이라 한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완성하는 묘지석(대개 묘지명)인데 대개 고인에 대하여 잘 알거나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였다.

묘지석은 대개 부모 등 가까운 조상의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때로는 십대 이상인 먼 조상의 묘지석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먼 윗대 조상을 향한 깊은 효심, 존경을 나타낸 일단(一端)이다.

먼 선조의 묘지석을 (도공으로 하여금 구워) 만든 대표적인 분을 꼽는다면 죽산안씨(竹山安氏) 가문의 안종무(安宗茂, 1703년 10월 5일~1761년 11월 28일) 공(이하 존칭 생략)을 들 수 있다. 안종무는 14대조인 안극인(安克仁, ~1383년) 묘지석(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도1)을 영조 37(1758)년 4월에 이의현(李宜顯: 1669-1745년)의 글을 받아서, 12대조인 안망지(安望之, ~1424년)의 묘지석(개인 소장)(도2)을 ⁵⁾ 영조 37(1761)년 4월에 만들었다. 안

2)여기서 묘는 왕의 묘 즉 능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왕과 왕비의 묘지는 능지(陵誌)로, 승려의 묘지는 탑지·묘지로 각각 불렸다.

3)필자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된 묘지·묘지명을 공개하는 특별전 ‘삶과 죽음의 기록 조선 묘지명’<전시 기간: 2011년 2월 28일~4월 17일, 영창대군 묘지명 등 150여 점 500여 점(국립중앙박물관 약 100 건, 외부 약 50건)>의 기획과 전시를 담당하고 관련하여 발간한 책(『삶과 죽음의 기록 조선 묘지명』의 원고(도판해설 및 내부에 수록한 연구 논문 2편)도 작성하였다.

4)묘지석의 제작과 발생은 어느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 각지에는 나름의 역사, 전통, 문화를 지니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대개 지금으로부터 약 2천여 년 전부터 시작하였다.

극인 묘지석에는 ‘십사세손중무지평현사우자十四世孫宗茂砥平縣書于砥’라는 글씨가 있고, 안망지 묘지석에는 ‘십이대손중무수지평현서우자十二代孫宗茂守砥平縣書于砥’, 란 글씨가 있다. 이로 인하여 안중무가 지평현감 때 도자기(초벌구이한 도자기가) 표면에 글씨 쓴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은 곳 즉 가마 위치가 어느 곳(고을)인지, 또는 관요인지, 개인이 운영하는 가마인지 등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도1)안극인安克仁 백자 묘지석 고 16.5, 1761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 10440). < 딸이 공민왕의 제 4왕비인 정비定妃(~1428년)이다. 아들(정비의 동생)은 숙로(叔老), 숙로의 아들이 안망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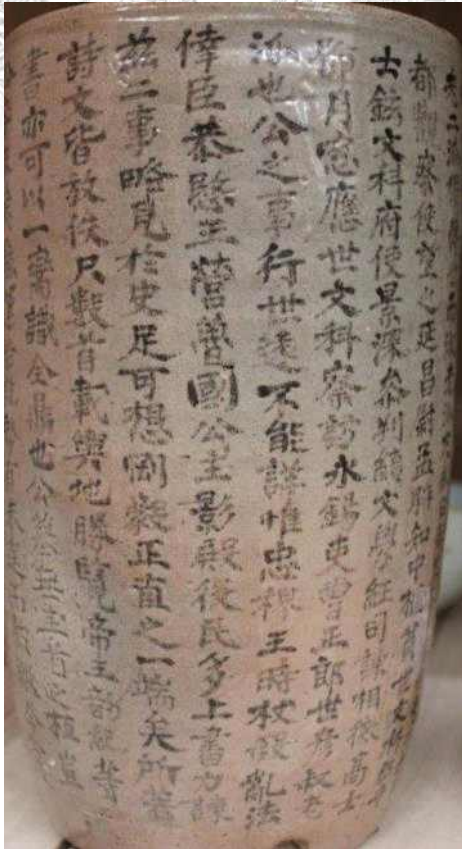


(도1-1)안극인 백자 묘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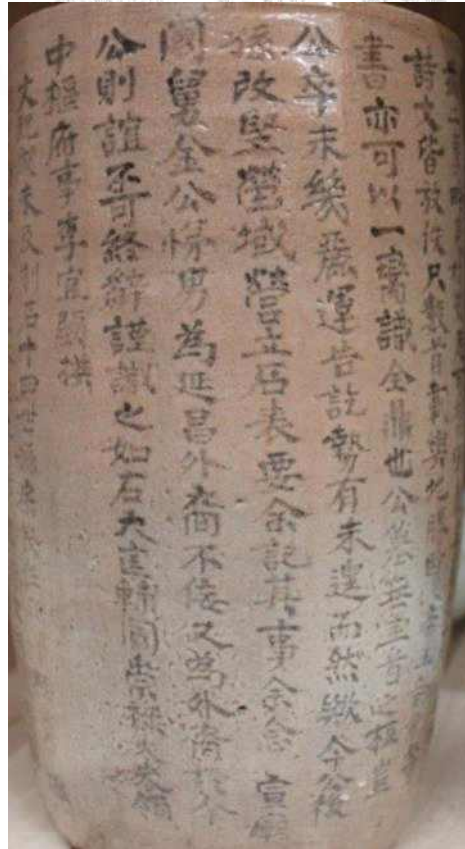


(도1-5)안극인 백자 묘지석 이 구멍은 물 빠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태실의 석함에도 밑에 구멍이 있다.

5)안망지(안극인의 손자)의 묘지석 사진 및 명문은 온양민속박물관, 『조선시대 지식의 조사 연구』, 1992년, p.41(도 57), pp.140~141(명문)에 실려 있다; 안망지의 아들은 세종의 차녀인 정의공주(貞懿公主, 1415~1477년)와 혼인한 부마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 1415~1462년)이며 안중무의 직계 11대조이다; 안극인·안망지와 안중무 간의 세대世代 기록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혼선이 있다. 안극인 묘지석에서 안중무는 안극인의 14세손(13대손)이다. 안중무 묘지석에서 안맹담의 11세손(10대손)인 것을 놓고 헤아리면 안극인은 안중무의 14세조(13대조), 안망지는 안중무의 12세조(11대조)이다. 안망지 묘지석과 『죽산안씨족보』에서 안극인은 안중무의 15세조(14대조), 안망지는 13세조(12대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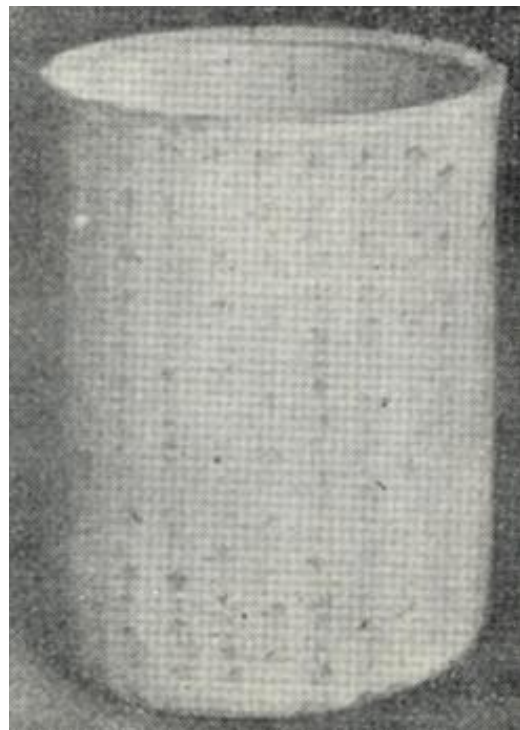
(도1-3)안국인 백자 묘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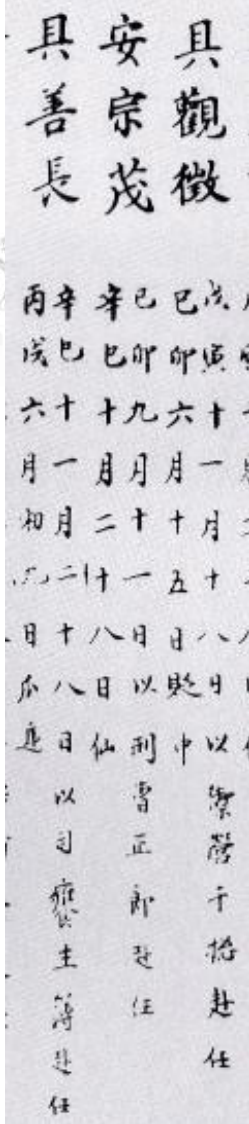
(도1-4)안국인 백자 묘지석



(도2)안망지安望之 백자 묘지석 1761년, 고 25.4, 개인 소장, 온양민속박물관, 『조선시대 지식의 조사 연구』, 1992년, p.41 (도 57)



(도3)안종무 백자 묘지석 고 21.5, 1761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이 사진은 정양모, 「안종무(安宗茂)의 백자 묘지」, 『고고미술』 4권 2호(통권 31호), (1963년).



(도4)1899년 편집한 「지평군읍지砥平郡邑誌」의 「선생안先生案」(부분) 양평군지 편찬위원회, 『양평군지楊平郡誌』 하, 2005년, p.115

안종무 묘지석(도3)의 6) 글(묘지)의 말미에 ‘신사<辛巳, 영조 37(1761)년> 十一月二十八日以숙환고복어관宿患臯復於官’과 ‘辛巳十一月 日재지평현변조在砥平縣燔造’가 있다. 1761년 11월 28일에 안종무가 임소(任所)인 지평에서 별세하자 7) 고인(안종무)의 유지를 받은 자손들이 고인(안종무)이 조상을 위하여 만든 위 두 묘지석과 같은 모습(통형筒形)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재지평현변조在砥平縣燔造’ 만으로 구은 장소 등을 역시 알 수 없다.

지평현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지평현」의 특산(特産)에 자기와 도기가 있다. 8) 조선 초기부터 도자기를 생산하던 고을이다. 만약 안종무 가문의 묘지석을 구은 장소가 지평현이라면 지평현은 조선 후기에도 지평현에서 생산하던 백토로 자기를 계속 생산한 곳이 된다. 9)

지평현 관내의 어느 가마에서 정녕 구웠다하더라도 관요일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가마일지 알 수 없다. 만약 관요였다면 사적인 묘지석도 변조하여 준 사례가 된다. 고을의 수령이었고 또 그곳에서 별세한 신분임에서 볼 때 다분히 관요일 것이지만 추측에 그칠 뿐이다.

필자는 2011년 묘지명 특별전 때 알게 된 안종무를 전남 고흥군에서 거주하는 여산송씨礪山宋氏 문중에서 2008년 간행한 『서행록西行錄』을 2014년 8월 14일 국립고궁박물관 도서관에서 읽으며 다시 만났다. 10) 『서행록』은 전라도 흥양현(興陽縣)에 11) 살던 여산송씨(礪山宋氏) 가문의 3대代<송정악(宋廷岳, 1697년

6) 안종무 묘지석(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은 정양모, 「안종무(安宗茂)의 백자 묘지」, 『고고미술』 4권 2호(통권 31호), (1963년), 15~21면에 소개되어 있다. 이 묘지석 마지막에도 ‘재지평현변조(在砥平縣燔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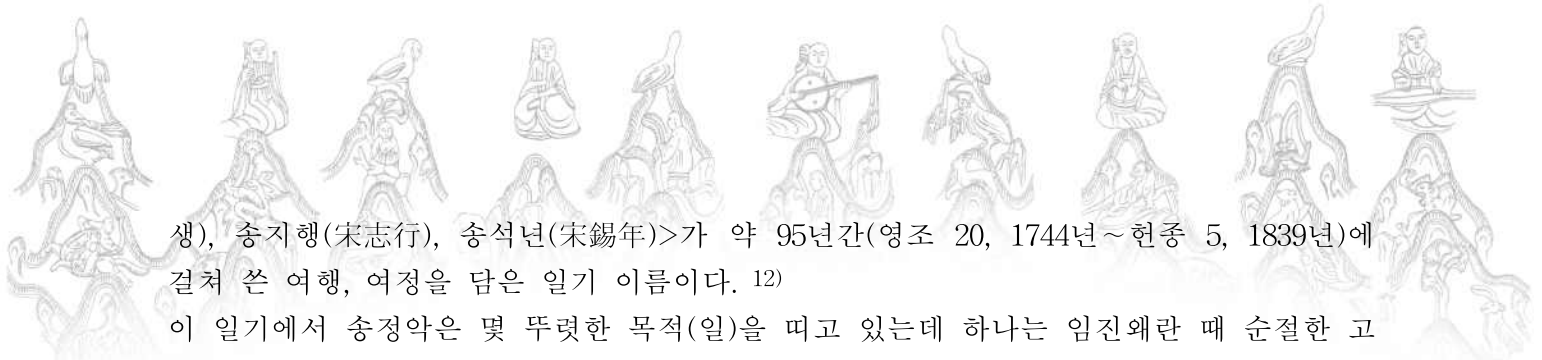
7) 『지평군읍지』, 「선생안先生案」(도4)에서는 기묘(己卯, 1759년 9월 11일 형조정랑으로 있다가 (지평현감으로) 부임하여 신사(辛巳, 1761년) 10월 28일 선(仙, 별세)으로 나온다.

8) 『신증동국여지승람』, 「지평현」 토산(土産), <송이[松蕈]·신감채(辛甘菜)·산개(山芥)·오미자(五味子)·자기(磁器)·도기(陶器)>.

9) 『증보문헌비고』, 「지평군砥平郡」 토산, <버섯·백토(白土)>.

10) 이후 『서행록』을 계속 생각하다가 2015년 6월 10일 송관중 님께 부탁을 드려 동월 15일 선물 받았다. 송대립 공과 송심 공의 충렬을 깊이 받들고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에 감탄하고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었다. 계속 읽다보니 사옹원 분원 등 역사적 장면들이 많아 그 하나를 이번에 소개하였다.

11) 흥양현은 현재의 전남 고흥군의 옛 이름이다. 고흥이란 이름은 충렬왕 11(1285)년에 고이부곡高伊部曲을 고흥현으로 승격시킨 데서 처음으로 나오며 이를 조선 세종 23(1441)년에 장흥부의 속현인 두원현으로 다시 옮겼다 보성군의 남양현(南陽縣) 및 동강, 풍양, 도화 등의 제현(諸縣)을 편입시켜 고흥과 남양의 이름을 따라 흥양현이라 하였다. 고종 32(1895)년 흥양군으로 개칭, 1914년 흥양군을 고흥군으로 개칭하였다.



생), 송지행(宋志行), 송석년(宋錫年)>가 약 95년간(영조 20, 1744년~현종 5, 1839년)에 걸쳐 쓴 여행, 여정을 담은 일기 이름이다. ¹²⁾

이 일기에서 송정악은 몇 뚜렷한 목적(일)을 띠고 있는데 하나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고조 송대립(宋大立)과 ¹³⁾ 병자호란 때 순절한 증조 송심(宋諡)의 ¹⁴⁾ 충의 사적을 엮어 간행(1769년)하는 책 『충효록忠孝錄』에 들어갈 서문·발문·찬시(讚詩)를 전국 각지(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당시 이름 높은 문신, 학자들을 찾아가 부탁하여 받는 일, 다른 하나는 경기도 용인 한천(寒泉)에 살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던 당대의 저명한 문신이자 예학자인 도암(陶菴) 이재(李縉, 1680~1746년)에게 두 선조의 비문을 부탁하여 받은 일이다.

도암 이재는 1744년 당시 병환 중이었고 또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탁받은 글을 지어야 하는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충렬 사적을 밝히려 노력하는 송정악의 간곡하고 극진한 태도에 감복하여 비문을 ¹⁵⁾ 지어 주었다. 또 비문을 짓는 단기간이지만 문하생으로 받아 학문의 길로 이끌었다. 이로 인하여 송정악은 이재의 문인들과 동문수학하고 돈독한 유대를 맺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 안종무와 ¹⁶⁾ 한경양(韓敬養)은 송정악이 두 선조의 묘지석을 사용원 분원에 접촉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아래 일기에는 이러한 동향 등이 잘 드러나 있다.

영조 20(1744)년

4월 20일 길을 떠나 下村에서 유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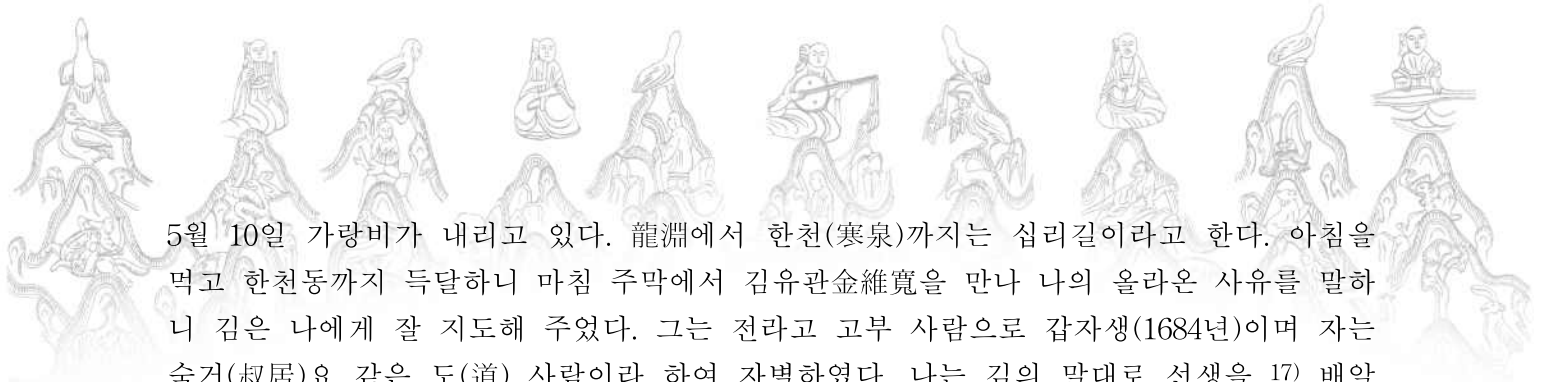
12) 『서행록』이란 이름은 송석년이 그 조부인 송정악의 일기를 등사(謄寫)하며 전체 이름으로 정한 것이다. 이는 송정악 일기의 끝에 송석년이 1808년에 작성한 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이름은 송지행의 일기에도 그대로 이어짐을 송지행의 일기 끝에 송석년이 1811년에 작성한 후기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 이름은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의 일기를 함께 번역하며 고흥 재동서원(齎洞書院, 전남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18)에서 2008년 간행한 책 이름으로도 이어졌다.

13) 송대립(1550~1597년)은 단종 때의 충신인 증 좌참찬 시諡 충강忠剛 간(侃, 1405~1480년)의 6대손이다. 임진왜란 중인 선조 27(159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지도(智島) 만호로 있던 동생 희립(希立, 1553~1623년)과 함께 의병을 이끌고 통제사 이순신의 휘하에서 활약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권율의 추천을 받아 창의별장에 임명되어 홍양 첨산(尖山)에서 적을 무찔렀으나 적탄에 맞아 4월 8일 순절하였다. 병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선무원종공신 1등에 추록되었고 고향에 충신의 정문(旌門,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1318)이 세워졌다. 묘소는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1081-1(귀산龜山 마을 뒷산), 6대조 송간을 주벽(主壁)으로 제향(祭享)하는 고흥 재동서원에 배향되었다.

14) 송심(1590~1637년)은 송대립의 제 3남이다. 아버지가 정유재란 때 창의별장으로 홍양(興陽)에서 전사하자 이를 복수하려는 일념으로 무예를 연마하여 광해군 6(161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선전관, 전라도병마우후(全羅道兵馬虞候)등을 역임하였고 특히 함경도 홍원현감(洪原縣監) 때 조선을 침략(병자호란, 1636년 12월 9일~1637년 1월 30일 송과 삼전도에서 강화조약 체결)하여 승리하고 본국으로 철군하며 만행을 자행하던 청군 소속의 몽고병을 추격하던 함경도 안변 관내 남산역(安邊 南山驛)에서 인조 15(1637)년 2월 15일 고군분투하다가 아버지와 같은 나이인 48세로 순절하였다. 좌승지에 추증되고, 아버지의 충신 정문 곁에 송심의 충신 정문도 세워졌다. 묘소는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촌리 14-1(당산棠山 마을 뒷산)에 있고, 재동서원에 배향되었다.

15) 송대립의 묘갈(묘비)은 자헌대부 충무위 부사직 겸 세자좌부빈객 이재 찬(撰), 묘지석(묘지명)은 대광보국 승록대부 영증추부사 유척기(兪拓基) 찬이다. 송심의 묘갈(묘비)은 자헌대부 충무위 부사직 겸 세자좌부빈객 이재 찬, 묘지석(묘지명)은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증추부사 유척기 찬이다.

16) 안종무는 『충효록』 안에 서문도 남겼다.



5월 10일 가랑비가 내리고 있다. 龍淵에서 한천(寒泉)까지는 십리길이라고 한다. 아침을 먹고 한천동까지 득달하니 마침 주막에서 김유관金維寬을 만나 나의 올라온 사유를 말하니 김은 나에게 잘 지도해 주었다. 그는 전라고 고부 사람으로 갑자생(1684년)이며 자는 숙거(叔居)요 같은 도(道) 사람이라 하여 자별하였다. 나는 김의 말대로 선생을 17) 배알하고 선조(先祖)를 위하여 올라왔다는 사유를 말씀 올린 선생께서 노병으로 수응酬應하지 못한다고 고사하신다. 나는 일어서서 다시 청하여 말하기를, “이미 선조의 천유지사(闡幽之事)로 18) 천리(千里)를 과족(裹足)으로 19) 올라와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저의 사정(私情)이 너무나 절박(切迫)하기 그지없습니다.”

선생께서 “그대의 말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나의 身病이 조금 낫기를 기다려서 해보기로 하자. 그러나 나에게 글을 청하고 뜻을 못 이룬 자가 수십인이요. 또 나의 家内の 글과 지친간이 청한 글부터 먼저 지은 다음에 그대의 청한 바를 해 보겠다.” 하시다.

나는 다시 말씀을 올렸다. “내리신 가르침 극히 지당하기에 죄송하옵니다.” 라고 말하며 가지고 간 약간의 폐물(幣物)을 올리고 재배하니 선생께서 답음(答揖)하고 시자(侍者)에게 전傳하여 말씀하시되 “병으로 능히 예를 갖추지 못하니 허물치 않았으면 한다.” 하였다. 예가 끝난 뒤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므로 가장家狀 본초本草를 올렸다. 선생께서 누차 탄미歎美하시면서 말하기를 “어찌 저 해우벽향海隅僻鄉에 이와 같이 희세稀世의 절행이 있음을 내 생각인들 했으리요. 내 비록 병든 몸이지만 끝까지 사양할 수만은 없는 바로다.” 하시면서 나의 나이와 소업所業을 물으셨다. 나는 “나이는 사십팔세(1697년생)이며 소업은 없습니다.”라고 답하니 선생께서 “충신의 후손으로 업이 없으니 실로 가석한 일로다.” 하시며 “자질이 독실하여 가히 학문을 할 만하겠다.” 하시었다. 나는 절하며 사의를 표하고 나와서 사관舍館인 태선太先의 집에 묵기로 하였다. 능양綾陽 박성지朴聖至가 나에게 한 말대로 따랐다.

5월 11일 아침에 맑은 날씨가 비가 내리다. 김석사金碩士 유관維寬은 나에게 어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대에게 애석哀惜한 마음이 많으셨다. 비록 멀리서 온 사람이라도 글 배우기를 청하면 쉽게 수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대에게는 그렇지 않으시니 지금 선생께 나아가 수업을 청함이 좋겠다고 한다. 나는 즉시 선생께 나아가 수업을 청하였더니 격몽교결을 주시면서 김유관과 함께 강론하라 하신다. 물러나와 김기래金騎來에게 어려움을 물었다.

6월 초 1일 올라온 뒤로 강학하니 다행한 일이나 바라는 문자文字<叅議 承旨 兩世의 묘갈문>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여 초조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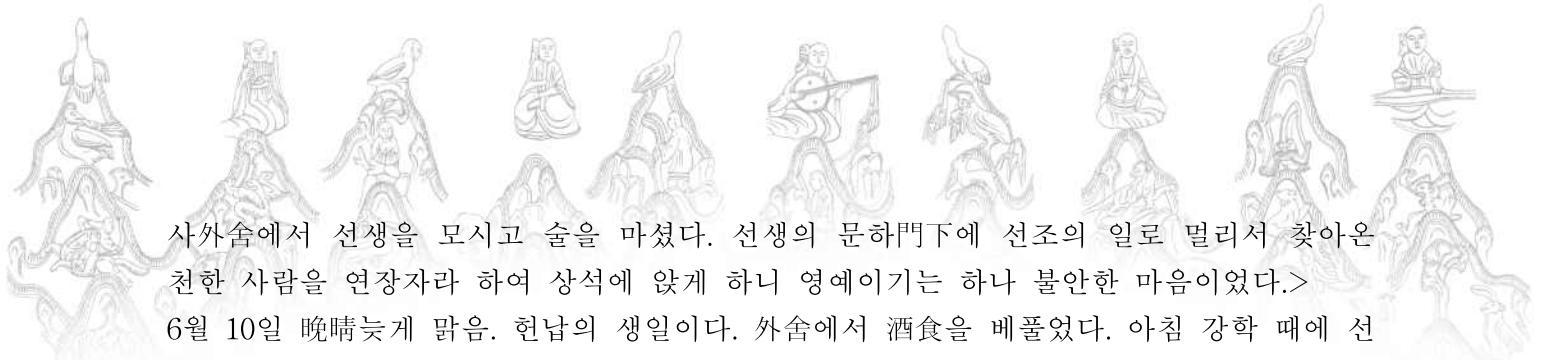
6월 3일 헌납獻納이 20) 大夫人의 생신에 성찬盛饌을 배설配設하고 제생도諸生徒들과 외

17) 선생은 『사례편람』(1844년 초간)의 편술 저자인 도암陶菴 이재李穰(1680~1746년)이다.

18) 천유지사(闡幽之事)에서 천유란 알려지지 않은 일, 숨겨진 일을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훌륭한 조상의 업적을 밝히는 일이라고 본다.

19) 과족(裹足)이란 발을 싸맨다는 뜻으로, 두려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거나 일이 진전되지 않음을 이르는 말. 앞으로 나아가지 않다.

20) 이 헌납은 이재의 아들 이제원(李濟元, 1709~1752년)이다.



사外舍에서 선생을 모시고 술을 마셨다. 선생의 문하門下에 선조의 일로 멀리서 찾아온 천한 사람을 연장자라 하여 상석에 앉게 하니 영예이기는 하나 불안한 마음이었다.>

6월 10일 晩晴늦게 맑음. 헌납의 생일이다. 外舍에서 酒食을 베풀었다. 아침 강학 때에 선생께서 “그대가 헌납에게 청을 했는지 헌납이 그대의 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 그대가 소학을 모두 읽은 다음에 내 마땅히 글을 지어 주겠다.” 하시었다.

당초 문자를 청할 때에 선생께서 빨리 할 수 없다 하시어 내 비록 수개월이 지체하더라도 기필코 글을 받아가기로 작정하였으며 또 소학을 배우게 되어 마땅히 다 읽고, 말의 상처도 완쾌된 후에 내려가겠다고 말씀 올렸다.

6월 20일 오후에 김유관이 선생이 계신 곳에서 나와 오늘에야 선생께서 형의 집 문자를 지으려고 본초本草를 취람取覽하신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민민憫憫하더니 이 소식을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다. 문자를 청탁한 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쌓아두고 있을 뿐 요즘에 약간 저술하고 계시나 그의 본가와 지친간至親間的 소청분所請分과 누차 부탁하고 기다리다가 죽은 자부터 해준 후에 우리 집의 차례인데 그 중에서 章을 한 것 십여 건이요 초草를 하지 않은 것이 십오륙건인데 귀락당 신도비문 21) 역시 완성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내 집 문자文字는 앞으로 팔월 그믐께나 될 것 같다. 헌납이 누차 말씀드렸고 또 안 최 양兩 진사가 연이어 아뢰었고 김유관 한경양韓敬養도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 식량이 절량絶糧된 사실도 틈을 내어 말씀드렸기에 선생께서 모든 것을 다 미루고 먼저 내 집 문자를 지으시니 극히 다행한 일이다. 단 선생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장림長霖 중에 밖에 나서지 못한 나의 사정을 헤아리셨고 또 무더운 여름 날씨에 병창病瘡의 말을 탈 수 없음을 염려하시어 이로 하여금 지체시켜 만학晩學의 공부를 수업하도록 하시니 상인常人的 정情으로는 멀리 보지 못하고 경솔히 독촉하였음을 탄할 뿐이다. 저녁에 나를 부르시어 집에 내려갈 날짜와 미병馬病에 대하여 하문하셨다.

6월 21일 조강朝講 때에 참의공의 갈문초碣文草를 문인 한사직韓司直으로 하여금 읽게 한 뒤에 묘소의 지명地名과 좌향座行을 물으셨다. 오후에 양대兩代의 묘문서초墓文序草가 완성되어 김유관에게 정서正書토록 하교하시니 김석사가 草文을 갖고 초당으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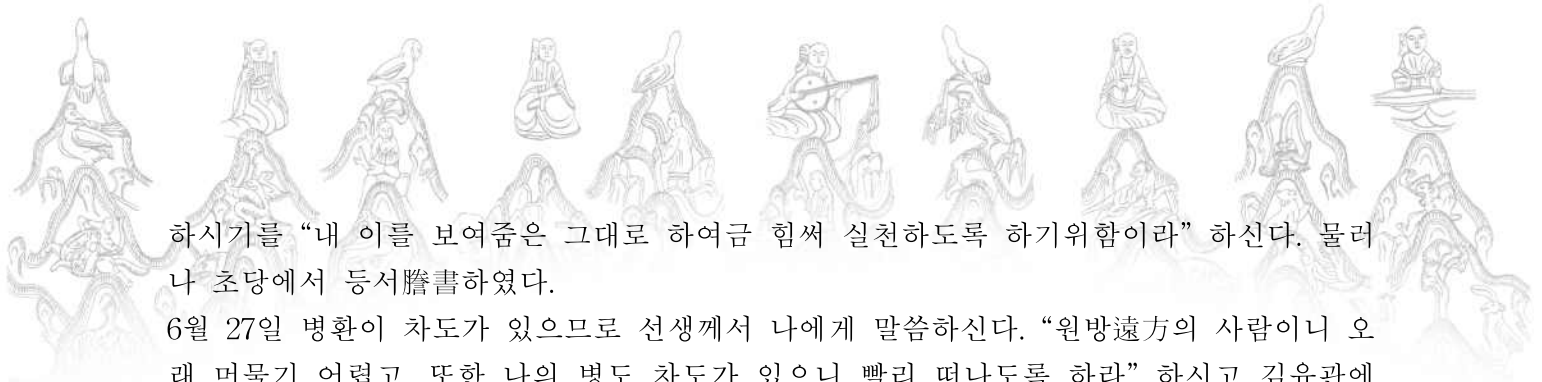
6월 22일 조강 때에 선생께서 지으신 양대 묘갈문의 序文과 말명末銘을 문인들과 나에게 보라 하신다. 김숙거(유관)가 참의공 묘갈문을 다 쓰고 승지공 묘갈문을 쓰고 있는데 선생께서 살펴보시고 손수 제목을 쓰신 후 내려 주시므로 받들어 재배하고 사례한 뒤 낙안 선조樂安先祖(충강공 간侃) 묘사墓事를 서서 문목問目을 올린 즉 안진사(安進士)를 22) 시켜 답을 서주셨다. 선생께서 ‘경계지사警戒之辭’의 수필手筆을 받들어 가겠다고 청하였더니 후일에 신기神氣가徐徐히 좋아지면 써주겠다고 하시기에 소책자를 드렸다.

선생께서 이일재(李一齋)의 묘갈문을 23) 보이며 손자 李木을 시켜 읽도록 한 다음 하교

21)귀락당(歸樂堂)은 이만성李晩成(1659-1722년)의 호(號). 도암 이재의 숙부이다.

22)이 안진사는 안종무이다. 안종무는 숙종 29(1703)년 진사 3등 1위(31/100)로 입격하였다.

23)이일재는 이항(李恒, 1499~1576년). 이항은 초야(전라도 태인)에서 성리학을 연마하며 뛰어난 제자들을 길러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항의 묘비(묘갈)는 이항의 묘(정읍시 북면 보림리 산 73-11) 우측에 선조 10(1577)년에 세웠는데 큰 크기와 긴 문장으로 보면 신도비 격이다. 허엽(許曄, 1517~1580년)이 이항의 제자인 유몽학, 변사정, 김천일이 지은 행장을 갖고 노수신(盧守愼, 1515~1590년)에게 가서 묘갈명을 받



하시기를 “내 이를 보여준은 그대로 하여금 힘써 실천하도록 하기위함이라” 하신다. 물러나 초당에서 등서騰書하였다.

6월 27일 병환이 차도가 있으므로 선생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원방遠方의 사람이니 오래 머물기 어렵고, 또한 나의 병도 차도가 있으니 빨리 떠나도록 하라” 하시고 김유관에게 속히 출발하도록 권하라고 하셨다고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선생께 배사拜辭하고 동문들과 작별하고 출발하였다.

영조 22(1746)년

12월 10일 한천 선생의 장례에 가기 위하여 일찍 출발하였다.

12월 20일 갈원葛院을 지나 한천에 도착하니 이미 어두웠다. 영계전靈几前에 들어가 곡을 하니 통박痛迫한 회포를 어찌 다 말로 하라

12월 27일 오늘이 발인일이다. -하략-

12월 29일 삼우三虞의 종헌終獻은-중략- 돌아왔다. 24)

영조 28(1752)년

4월 13일 崔友와 동행하여 길을 떠났다

4월 27일 아현阿峴의 이대사간 집에 조문하고 서소문 밖 민정랑閔正郎 집에 들렀다가 비를 만나 유숙했다.

4월 28일 아침 일찍 서학동西學洞의 이한림 의철宜喆을 방문하고 군기시 앞 안국민安國敏의 집에 가서 지식을 번출하는 일에 대해 물어보고 또 대사동에 가서 ----

5월 9일 박정언(朴正言)은 25) 그의 친구 조문(弔問) 차 구십리 길을 간다하고 나는 선생(도암 이재)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천곡(泉谷)에 가기로 했다. 아침에 그에게 충효록서문(忠孝錄序文)을 부탁하니 군이 사양하더니 식후에 박정언은 그의 아들을 시켜 나의 선조 양대(兩代) 행장(行狀)을 사본(寫本)하라 했다.

5월 10일 : 흐리다가 비가 오다. 자고子高와 같이 학동學洞에 가서 이한림을 만나보고 안국민安國敏 집에 가서 청靑(꿀)을 가지고 왔다. 계산동에 가서 안종무를 만나서 지식 번출燔出에 대한 논의를 했다.

5월 29일 사기소(沙器所)에서 초번(初燔) 지식을 사오기 위해 민생원이 노자奴者를 보냈다. 민閱은 한참봉韓參奉의 생질이다. 월서月西라고 하는 노자가 있는데 그가 사기소에 가서 지식을 사오겠다 하므로 약간의 술값을 주었다. 그리고 지식 값 二兩도 보냈다. 월서가 늦게 와 하는 말이 초벌구이 지식은 없고 十一日에 다시 가서 지식을 사오겠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씨는 중종의 사위인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 1516~1584년)이 썼다; 이항의 신도비(북면 마정리 834)는 1949년에 세웠으며 김영한金甯漢 찬撰,최병심崔秉心 전篆,송기면 宋基冕 서書이다.

24)송정악의 『서행일기』에서 한천분망기(寒泉奔哭記)로 제목을 붙인 일기의 영조 23(1746)년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는 도암 이재의 상례에 참여한 내용이다. 이 기록 가운데 영구(靈柩)를 광중(壙中)에 들이는 모습, 절차 등이 묘사되어 있다. 당대 사표이자 예학 종장(宗匠)인 이재의 후손·후학들이 치룬 상·장례의 중요한 면모를 전하고 있다. 민속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25)박씨 성의 정언 벼슬을 지낸 사람이며 박성원(朴聖源, 1697~1767년)이다. 충효록 안에 서문이 있다.



한다.

6월 17일 이만호李萬戶의 전하는 말을 듣고 민망할 뿐이다. 李萬戶란 사람은 士涵의 26) 청으로 사기소에 가서 부호수釜戶首(그릇을 굽는 가마의 수장)를 만나서 지식에 관하여 상의한 바 진상할 奉事가 끝나기 전에는 사사로운 일을 할 수 없으니 진상이 끝날 칠월에나 지식을 굽겠다고 말했다 한다. 이李의 말이 옳다 여겨서 李와 칠월로 약속하고 돌아섰다. 고민이다.

6월 18일 민의 노자인 월서가 와서 지식의 초별구이를 하고 있다 한다.

6월 19일 지식 조각을 월서가 분원(分院)으로부터 휴지에 싸가지고 왔다. 십이 조각의 초별구는 지식인데 사함이 시서해보니 습하여 글쓰기가 더디고 자획이 흩어져 손에 닿는 촉감이 글을 쓰기가 어렵다 한다. 잘 건조되려면 칠월 후가 좋을 것 같다.

7월 8일 일찍 떠나 은곡隱谷 사함의 집에 이르렀다. 지식은 서역書役을 마쳤으나 사함은 산성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7월 12일 사함이 돌아왔다. 이만호도 데리고 왔다.

7월 13일 지식을 이만호에게 보냈다. 저녁에 회신에 의하면 봉사(奉事)라는 자者が 지식을 받지 않고 굳이 거절하더라고 한다. 분한 노릇이다. 저녁부터 비바람이 크게 일었다.

7월 14일 민의 노자를 분원에 보내 지식을 가져오라 하였더니 이만호의 회신에 받아 줄 것 같이 보이므로 보내지 않고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다행이다.

7월 23일 새벽에 떠나 양덕仰德을 건너서 덕고곡德高谷에서 잠시 쉬었다가 신원 고개를 넘고 한음漢陰(이덕형) 묘하墓下를 지나 은곡에 도착하였다. 먼저 지식의 번출燔出 소식부터 물으니 일이 순조로이 되어서 가지고 왔다고 한다. 내 비록 몸은 고달프고 발은 부어 물집이 수없이 생겨 인사불성이로되 완성된 지식을 보니 뿔 듯이 놀랍고 기뻐서 땀이 옷에 흠뻑 젖은 줄도 잊었다.>

7월 24일 지식과 옷을 韓의 노자인 五萬을 시켜 서울로 보내고 나는 閔家의 말과 종을 빌려 타고 용진龍津으로 내려가서 나무 실은 배를 타고 봉원鳳院에서 유숙하였다.

7월 30일 용산에 나가 윤참판을 찾았으나 못 만나고 정동에 갔으나 조판서趙判書도 못 만났다. 이번에 서울에 와서 오로지 지식에만 뜻을 두었으나 몇 달이 지나가고 당세當世의 진신縉紳과 사우士友 중에서 맑고 높은 志節이 있는 사람들의 글을 얻고자 했고, 또 나의 사문자師門者 중에서 일류문장가로 하여금 충효록의 서문序文·발跋·기記 등을 얻기로 하고 일찍이 있었던 공사문서公私文書와 전傳·발跋·지誌·갈礪을 합하여 한권 책으로 편집, 입각入刻, 인출印出하여 후세에 영구히 전하여 불후不朽를 도모하자는 것이니 지식은 이미 구어 두었으나 문자를 얻기 위한 일이 많으나 양식도 이미 다 되어서 돌아갈 것을 마음먹고 동분서주하나 일이 많이 미루어지니 어찌하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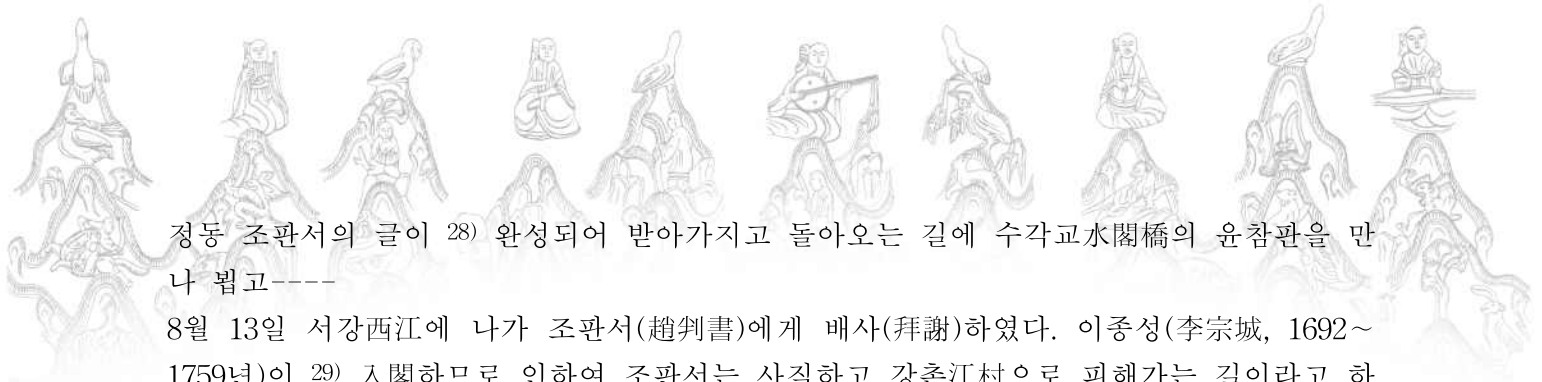
8월 1일

비가 온다. 정동貞洞의 조태(趙台)를 27) 만나니 속히 글을 지어 주겠다고 승낙한다.

8월 9일

26)사함은 한경양의 자(字).

27)조태(趙台)는 조씨 판서 즉 조관빈.



정동 조판서의 글이 28) 완성되어 반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수각교水閣橋의 윤참관을 만나 뵙고----

8월 13일 서강西江에 나가 조판서(趙判書)에게 배사(拜謝)하였다. 이종성(李宗城, 1692~1759년)이 29) 入閣하므로 인하여 조판서는 사직하고 강촌江村으로 피해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9월 4일 (홍양) 집에 돌아왔다.

영조 30(1754)년

10월 23일 날씨가 흐리고 쌀쌀하다. 조판서를 만나 보기 위해 안산安山에 갔다. 백여 리를 왔으므로 나이 많은 나는 몹시 피곤하다.

10월 24일 조반 후에 조판서를 뵙고 만나질 동안을 모시고 (홍양현에서) 귀양살이 하던 때의 일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만류(挽留)한 것을 무릅쓰고 뵙고 난 한 후에 그곳을 나와 서천叙川을 경유 아산주점牙山酒店에서 쉬었다가 검천黔川에서 유숙했다.

12월 7일 조상서(趙尙書 관빈觀彬)가 지은 몽견도암이공설(夢見陶菴李公說)과 박필선(朴弼善, 성원聖源)의 상동궁소본(上東宮疏本)을 등서(謄書)하였다.

영조 31(1755)년

7월 18일 맑음 새벽에 출발하여 안산의 조판서(趙觀彬)를 뵈니 마침 계서서 조용히 이야기하며 만나질을 보냈다. 판서께서 일찍이 퇴어장退漁丈의 30) 운에 따라 주기를 바랬기에 잊지 않고 있었으나 매양 객(客)이 31) 되어 돌아다니다 보니 이루지 못하고 이제 송생원을 만나고 보니 부끄럽기 말할 수 없다 하시므로 나는 일어서서 그 뜻에 경의를 표하였다. 그는 감히 “말씀대로 따르시겠다.” 하시며 깊이 생각하시더니 청직이를 불러 쓰게 하시며 근래에 글 쓰는 것을 전폐全廢하였다고 한다. 혹시 청직이가 잘 쓰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며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의 시가 좋지 않으니 너의 붓도 좋지 못하구나” 하시며 나에게 내어 주시었다. 또 서울에 가면 글 잘 쓰는 사람에게 정서(精書)토록 하라 하시었다. 판서께서 나의 시가 그대로 하여금 유명해질 것이다. 하시며 크게 웃으시니 그 기상이 호쾌(豪快)하여 불기지폐(不羈地吠)라 하겠다. 소주를 내오라 하며 나에게 권하기에 반잔을 마셨더니 웃고 계시는 판서께 배사(拜辭)하고 물러나 黔川에 돌아오니 발이 온통 누에고치가 되어 심한 통증을 느꼈다.

영조 35(1759)년

1월 9일 충효록 인출(印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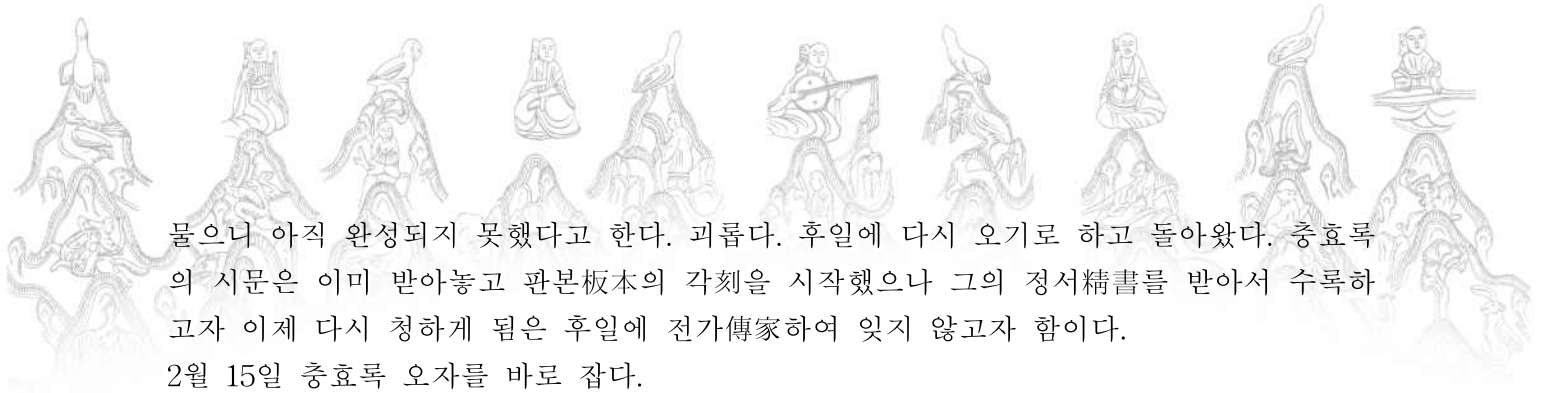
2월 14일 명동의 이교리(李校理, 명식命植)의 병 문안을 하고 그의 시문을 부탁했던 것을

28)판서 조판빈이 작성한 글은 『충효록』에 들어가는 찬시(讚詩)이다.

29)이종성은 당시 소론의 중심인물.

30)퇴어는 김진상(金鎭商, 1684-1755년)의 호.

31)객은 유배살이를 말한다.



물으니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한다. 괴롭다. 후일에 다시 오기로 하고 돌아왔다. 충효록의 시문은 이미 받아놓고 판본板本の 각책을 시작했으나 그의 정서精書를 받아서 수록하고자 이제 다시 청하게 됨은 후일에 전가傳家하여 잊지 않고자 함이다.

2월 15일 충효록 오자를 바로 잡다.

3월 19일 (홍양) 재동(齋洞) 종형(從兄) 집으로 가다.

3월 20일 가묘(家廟)에 충효록 간행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송정악(1697년생)과 안종무(安宗茂, 1703~1761년), 한경양韓景養은 1744년에 이재(1680~1746년)의 집(용인 한천)에서 동문 수학하였다. 송정악은 이재로부터 두 선조의 묘갈명(묘비명)을 받아 비석을 영조 39(1763)년에 세웠다. 그에 앞서 영조 28(1752)년 송정악은 안종무와 한경양를 만났는데 목적은 오직 두 선조의 묘지석을 만들기 위한 사전 지식 즉 관요인 사옹원 분원에서 32) 묘지석을 굽는 길(경험 포함)을 알아보고 도움 받으려 하는데 있었다. 위 두 사람 가운데 특히 한경양의 도움을 받아 송정악은 사옹원 분원에서 완성된 묘지석을 받고 그 심정을 “떨듯이 놀랍고 기뻐서 땀이 옷에 흠뻑 젖은 줄도 잊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서행록』 만을 통하여 본다면 안종무는 자신의 두 먼 조상(안극인·안망지)의 묘지석을 자신의 임지인 경기도 지평이 아닌 이웃 고을 지금의 광주(廣州) 분원리에 있던 사옹원 분원에 영조 37(1761)년에 청탁하여 제작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이 때 송정악이 영조 28(1752)년 사옹원 분원(당시는 광주 금사리에 있었음) 묘지석 만든 경험, 과정도 참고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안종무는 1752년 이전에 이미 사옹원 분원에서 사적으로 묘지석 제작함을 분명 알고 있었다. 안종무는 1761년 이전에도 두 조상 이외에 다른 분의 묘지석도 사옹원 분원 등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자료를 더 찾아보아야 할 사항이다.

『서행록』을 통하여 경기도 광주 사옹원 분원에서 공납용 도자기·국장이나 예장으로 치루는 망자의 묘지석이 아닌 묘지석 즉 개인이 사적으로 청탁한 묘지석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그 청탁이 공식적인 아닌 암암리에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초별구이한 뒤에 적어도 한 달 넘게 건조 시킨 이후에 글씨를 써야 하는 건조 시간 등이 단편적이거나 담겨 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의뢰한 묘지석을 사옹원 분원에서 번조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지석이 망자를 위한 행위, 특히 조상 등을 위한 효도와 예의를 앞세우는 행위이므로, 조선이 양반 사대부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의 청탁을 묵인, 용여한 것이라고 본다.

현재 전하는 조선시대의 국장, 예장을 치루지 않은 많은 묘지석 가운데에서 양질의 묘지석들 역시 이 『서행록』 처럼 사적인 청탁을 통하여 관요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본다.

경기도 광주 사옹원 분원 터 및 전국 각지의 관요 또는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던 가마터에서 묘지석 파편이 출토되고 있다. 33) 이 가운데에 상당수는 사적인 청탁을 받아 생산

32)사옹원 및 그 분원에 대하여는 이 글의 아래 p.14에 별도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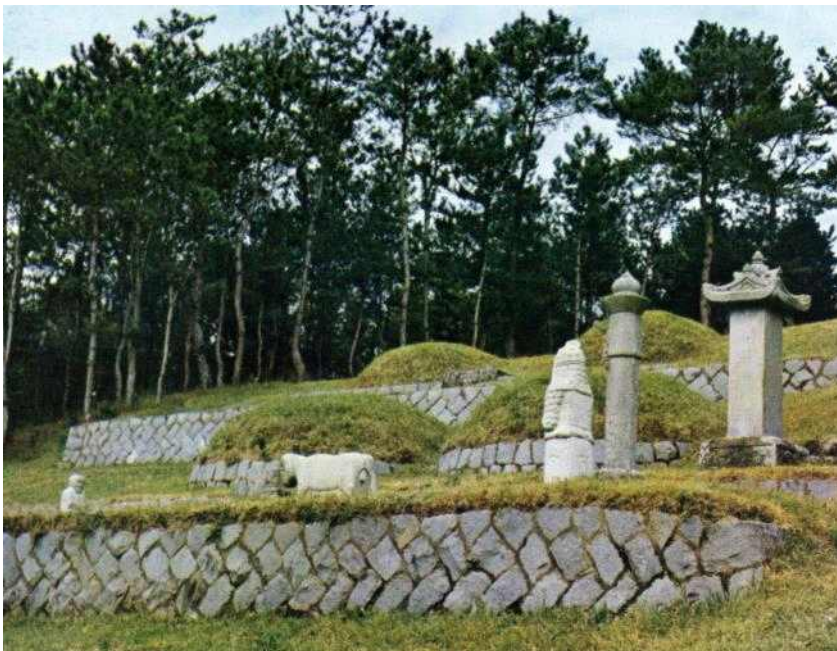
된 묘지석의 파편이다.

필자는 지난 묘지석 특별전 때 광산김씨 문중의 김선생(金善生: 1523~1563년) 묘지석(1551년)<온양민속박물관 소장>의 ‘현손(玄孫)인 김진일(金鎭一)이 사옹원 봉사(奉事)로 재직하며 나라의 번조를 맡았을 때 대략 기술하여 구워 광(壙)의 남쪽에 묻었다’는 묘지석의 기록을 읽었다. 사옹원 분원에서 사적으로 묘지석 번조가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34) 그러나 이 경우는 사옹원 관원으로, 더구나 앞에서 소개한 『서행록』에서 보듯 매우 큰 결정권을 가진 사옹원 봉사로 재직하며 청탁도 아닌 또 암암리라고도 할 것도 없이 만든 사례이다. 따라서 사옹원 분원에서 사적인 청탁을 통하여 묘지석을 만들어준 사례를 보여준 『서행록』의 기록은 사료 가치, 의의가 자못 크다 할만하다.

끝으로 도자기 가마 자리에서 출토되는 묘지석 파편들은 묘지석을 굽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지난의 과정, 노고의 흔적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도5-1)송대립 묘갈(묘비), 영조 39(1763)년 세움, 이재李緯 撰, 민우수閔遇洙 書, 유척기兪拓基 篆, 송관중 謫간, 『충효록』, p.4. <비신(碑身)의 돌은 색으로만 볼 때 송씨의 본관인 진북 익산시 여산(礪山) 천호산(天壺山)에서 채석하던 유명한 돌인 대리석으로 보인다. 비개(碑蓋)는 팔작지붕을 기본으로 하고 맨 위에는 절병통 모습 그리고 지붕 여러 마루에 용(龍)까지 나타냈다. 이는 17세기 중엽에 시작되어 18세기 중엽까지 당시 최고 사대부 가문에서 극히 드물게 사용한 최고급 양식이다. 당대 최고의 문신이 참여한 묘지석과 비문의 글 그리고 이 묘갈의 모습이나 돌 재질로도 송정약 등 당시 여산송씨 문중이 두 조상을 매우 높게 받들고 충렬을 자랑스럽게 여겼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도5)송대립宋大立 묘소와 묘갈(묘비),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1081-1(귀산 마을 뒷산), 송관중 謫간, 『충효록』, 고흥 재동서원, 1980년, p.3

33)관요 터에서 출토되는 묘지석 파편들 일부는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묘지명』, pp.58~63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p.58의 (도2) 공주목사 조씨(曹氏)는 이후 필자가 조중립(曹仲林)으로 밝혀냈다.

34)김진일의 사촌인 김진삼(金鎭三)의 후처 밀양박씨의 묘지석 글은 김진삼의 현손(4대손)인 김재구(金在球: 1879~1950)가 1920년에 지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도6)송심宋謙 묘소와 묘갈(묘비) 고흥군 포두면 남촌리 14-1(당산 마을 뒷산), 묘비는 영조 39(1763)년 세웠고 자헌대부 충무위 부사직 겸 세자좌부빈객 이재撰이다. 이 사진은 송관중 발간, 『충효록』, p.6



(도7)민우수(閔遇洙) 글씨 ‘충’
이 사진은 송관중 발간, 『충효록』, p.8. <이 글씨는 송정악이 동문(同門)인 민우수의 집(여주驪州 낙촌樂村)을 방문했을 때 부탁하자 써 준 두 글씨(‘忠’과 ‘孝’)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서행록』안 영조 20, 1744년 7월 1일 일기에 나온다. 민우수가 쓴 퇴헌(退軒)이란 큰 글씨가 퇴헌 조영순의 향제(鄉第, 경기도 장단도호부 진동면 동파리)에도 걸려 있었다. 이는 조영순의 차남 조정철(趙貞喆)의 시문집 『정헌영해처감록(貞軒瀛海處坎錄)』(1824년)(제주문화원 2006년 번역본의 p.223)에 나온다.

題宋氏忠孝錄後

人之大節惟忠與孝而已父為忠臣兒為孝子後古所罕
聞而宋氏之家有此雙節丁酉倭變立僅於尖山者故
訓鍊正贈參議諱大立是已丁丑虜亂効死於南山者故
洪原縣監贈承旨諱諤是已嗚呼有是父有是兒真不
誠壯且奇哉於尖山則以一義特募壯士抗強寇一戰而獲
數百誠再戰而奮身直前使賊被靡於勁弩利鋒之下
及其智勇俱窮向杜拜而死於南山則為帥臣所忤軀
送必死之地大陣猝迫我軍先遁而斥下校避死之言思
賢父殉難之義獨當賊鋒終日戰矢盡鉅折竟至殞身
前後事俱在丁年又四十八相符天之生此父子畀以一般
義節夫宣偶然哉 宣廟之特加褒崇 肅考之追旌
殆贈尤可以勸為人臣為人子者矣其後孫廷岳編輯兩公
行狀及墓碣誌表名曰忠孝錄示余請以一言記卷末
大小紀述多是一世立言之名家而其所闡揚靡有餘蘊然
余於兩公別有所景仰而感歎者兩公行錄云讀書史通
大義其有平日所諳可知矣豈可徒以戰陣一武之勇際
此兩公耶古人所謂未有不信其心而能得其力未有不待其
力而能致其死者於兩公為實際語也余觀宋君其人襟實剛
果恰是名祖之肖孫而以一布衣落在海曲將老白首矣悲
在其尚忠節錄後裔之義法耶宋君必不以是介意惟思
飭躬修行不忝先烈矣所可加勉者毋或曰門戶已替教諸
兒義理書安知異日又不出忠孝人耶聊書此以歸之

歲壬申仲秋上浣東湖趙觀彬跋

(도8)『충효록』안의 조관빈(趙觀彬)이 지은 발문 ‘제송씨충효록후(題宋氏忠孝錄後)’, 영조 28(1752)년 8월 상순, 이 사진은 송관중 발간, 『충효록』, p.695.

<송정악(1697년생)은 서행록의 영조 44(1768)년 1월 27일 일기에서 “양송(兩宋: 송준길, 송시열)의 자손의 글을 이미 받았으며 사충자손<四忠子孫: 신임사화(1721~1722년)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노론 사대신四大臣의 자손>의 글을 얻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실제로 서행록 안에는 노론 사대신 가운데 이우당(二憂堂) 조태채(趙泰采: 1660~1722년)의 차남인 회헌(悔軒 또는 동호東湖) 조관빈, 1691~1757년)과 그 가족<조관빈의 세 아들(영재榮哲, 영현榮顯, 영경榮慶), 동생 조겸빈(趙謙彬, 1692~1730년), 조카 조영극(趙榮克, 형 조정빈趙鼎彬1681~1756년의 계자系子, 동생 조겸빈의 장남, 조영순趙榮順의 형), 조카 조영순趙榮順(조겸빈의 차남, 사위는 도암 이재의 손자 이채李采)>과 집(서울 정동貞洞과 경기도 안산)이 여러 번 나오며, 충효록 안에 실린 여러 시문 가운데 조관빈, 조영극의 것도 있다. 조관빈은 신임사화로 인하여 1723년 12월에 興陽縣 나로도羅老島에 유배갔다가 영조 1(1725)년 3월에 풀려난 바 있어서 흥양(興陽)에서 올라온 송정악을 남다르게 대우하였다; 송정악은 사충신 가운데 소재(疎齋) 이이명(李頤命, 1658~1722년)의 자손을 찾기 위하여 충청도 부여에도 두 차례 들렀다.>



사옹원(司饗院)

조선 개국 직후 왕궁 안에 설치한 사옹방(司饗房)을 세조 13(1467)년 4월 4일에 고친 이름이다. (사옹방은 주로 왕궁 안 최고위 신분인 국왕 내외와 세자의 음식 등을 맡아 보았고 기타 계절에 따라 진상되는 음식물인 천신물, 어업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인 어량세, 왕궁 안의 사당인 문소전文昭殿에 올리는 천신, 왕궁에서 사용하는 도자기 감독 번조 등도 함께 담당하였다.)

(경국대전에서 사옹원은 어선 및 궐내 공궤(供饋)등의 일을 관장하였다고 나온다.)

사옹원은 각지에 분원을 설치하여 물품 조달을 맡겼는데 이 가운데 세조 말~예종 원(1469)년 사이에 설치한 1467~1468년 사이에 설치한 경기도 광주 분원에서는 왕궁 및 중앙 관청에 사용되는 도자기 번조와 공급을 담당하였다. 사옹원은 고종 32(1895)년 4월 2일 관제 개혁 때 궁내부 소속인 전膳司(典膳司)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사옹원 광주 분원의 위치는 상정 24(1493)년 광주목(光州牧)의 고재(羔岾)·강읍산(加仍邑山)·목예산(木刈山)·여말동(余末洞)·무애산(無涯山)·도마현(都麻峴)의 6개 지역을 사옹원의 시장(柴場)으로 정했다는 기록에서 보듯 경기도 광주목(廣州牧) 일대이다.

그러나 광주목의 시장만으로는 도성의 궁궐과 관서를 비롯하여 왕족들이 필요한 땔감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한양의 여러 관서가 점유한 시장은 광주를 넘어 양근군(楊根郡)까지 확대되었다. 숙종 23(1697)년에 작성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당시 사옹원이 백자의 제작을 위해 광주의 6개 면, 양근의 3개 면을 시장으로 확보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정확한 지명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시대 관요 가마들의 위치는 남한강의 남쪽에 해당하는 광주목의 동부 지역과 양근군의 남쪽 부근에 있었다. 특히 경종 1(1721)년부터 영조 28(1752)년까지는 금사리에, 이후는 현재 남종면 분원리로 이동하여 조선 말기까지 줄곧 운영되었다.

사옹방 시기 작으로 보이는 ‘司饗사용’·‘司사’ 명문이 있는 도자기는 충북 옥천 사정리 도요지에서 조사된 바 있고 1395년작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용’·‘사’ 명문이 있는 도자기는 1398년 9월작이다. 그리고 울산박물관에도 사용 명문 도자기가 소장되어 있다.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14) 여행하는 부부가 묘사된 유골함

노회숙, 기획전시실 19:00~19:30

설화석고[alabaster]로 제작된 ‘여행하는 부부가 묘사된 유골함’에는 지붕이 달린 이륜마차를 탄 부부가 저승으로 떠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쌍의 노새가 끄는 마차 앞에는 말을 탄 사람이 부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차 뒤로는 어른 한 명과 아이 한 명이 행렬을 뒤따르고 있고, 어린 종복이 마차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볼테라 지역 유골함에서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맨 오른쪽에는 모자가 달린 망토를 두른 남성이 부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골함 뚜껑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오른손에는 부채, 왼손에는 석류를 든 채 연회에서처럼 왼쪽으로 누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설화석고를 기원전 8세기에 발견하였으나 유골함을 만드는 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세기부터였습니다. 설화석고는 재질에 연해 조각하기에 용이합니다. 설화석고 유골함에는 에트루리아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저승으로 떠나는 상상 속 여정,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이야기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골함은 수공예 작업장에서 제작되는데, 작업장은 보통 한 명의 장인과 여러 명의 보조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 도시 내에 작업장이 세 군데를 넘지 않았고, 1년에 각 작업장에서는 5~6개 유골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설화석고의 채취와 생산으로 유명한 에트루리아의 도시 볼테라에서는 오늘날에도 설화석고를 사용한 다양한 공예품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부부가 묘사된 유골함, 기원전 2세기 말, 석관 높이 33.0cm, 뚜껑 높이 44.0cm, 구아르나치 에트루리아박물관